정신문화연구 2009 가을호 제32권 제3호(통권 116호) pp. 59~79.

研究論文

1950년대 모더니즘의 묵시록적 우울
- 박인환의 시를 중심으로 -

곽 명 숙*

Ⅰ. 서론
Ⅱ. 전쟁체험 이전의 현실인식
Ⅲ. 전후 분열된 정신과 묵시록적 우울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Ⅰ. 서론

1950년대 한국문학은 생존의 위협과 문화의 총체적 위기를 불러온 현대 전쟁의 폐허 위에 일어선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의 가까운 전사(前史)이면서도 잊혀질 운명을 지니고 태어난 문학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해방의 혼란 속에서 세계냉전체제의 포화를 맞아야 했던 1950년대는 그 이후 문학적 계승이나 발전의 면에서 흡수하기 어려운 이질적인 경험이 존재하는 공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일본이라는 제한되고 굴절된 식민주의적 경로가 사라지고 새로운 현대성의 통로가 열리면서, 현대시문학에서는 실존주의와 모더니즘으로의 전면적인 경도가 일어났다. 아울러 전쟁 체험과 개인의 실존이라는 문제가 문학적 주제로 부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 연구에서도 그러한 조건과 관련해 전쟁과 관련된 현실적인 측면들이 우선적으로 정리된 바 있고,[1] 박인환, 김수영, 김경린 등

* 서울대학교 강의교수, 현대시 전공(cittern@naver.com).

<후반기> 동인을 중심으로 한 모더니즘 시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들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 1950년대 모더니즘의 수준이 1930년대 모더니즘을 능가하지 못하고 재환기시키는 데에 머물렀다는 비판이나[2] 교량적 역할을 하였다는 제한적 긍정[3]이 있었지만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실존적 의식과 표현의 문제 등에 대해 그들의 시적 성취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졌다.[4]

1950년대 모더니즘 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특징을 아우르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작품을 해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개별적 시인들의 경향에 대한 해석을 통해 그 시대적 특징이 검출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누구보다도 50년대적인 시인이라고 불리는 박인환의 시세계를 해명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경우 1946년 해방과 더불어 문학활동을 시작하여 1955년 출간한 유일한 시집인 『선시집』을 정점으로 한 후, 다음해 3월 심장마비로 타계하였기에 그 문학적 활동이 철저히 1950년대로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여타의 시인들과 다르게 1950년대적인 지평에서 문명을 바라보는 시선의 깊이를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한계전은 박인환을 비롯한 후반기 동인들이 전쟁을 "현대인의 상처의 심화"로 인식하고 있었음에 주목한 바 있다.[5] 특히 박인환에게서는 모더니즘의 다양성과 가능성이 한꺼번에 드러나 있는데, 그에 비한다면 다른 모더니스트들의 시적 세계는 그 영역이 넓지 못하다는 것이다.

박인환의 시세계에 대한 논의는 현실인식과 죽음의식의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박인환의 시에서 한국전쟁을 전후로 달라진 현실인식의

1) 1950년대 문학에 대해 전쟁 체험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조망을 던진 연구로는 다음이 있다. 한형구, 「1950년대의 한국시: 전쟁시 혹은 전후시의 전개」, 문학사와 비평연구회(편), 『1950년대 문학 연구』(예하, 1991); 이영섭, 「50년대 남한의 현실인식과 시적 형상」, 한국문학연구회(편), 『1950년대 남북한 문학연구』(평민사, 1991); 유성호, 「1950년대 후반 시에서 '참여'의 의미」, 『한국 현대시의 형상과 논리』(국학자료원, 1997).

2) 서준섭, 「모더니즘과 문학의 신비」, 『외국문학』(1988, 겨울), 215쪽.

3) 오세영, 『20세기한국시연구』(새문사, 1989), 286~287쪽.

4) 문혜원, 「한국 전후시의 실존 의식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1996); 송기한, 「전후 한국시에 나타난 시간의식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1996); 류순태, 「1950년 한국 모더니즘 시의 표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1999); 금동철, 「1950~60년대 한국 모더니즘 시의 수사학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1999).

5) 한계전, 「전후시의 모더니즘적 특성과 그 가능성(2)」, 『시와 시학』(1991, 여름), 404쪽.

변모 과정을 적극적으로 규명한 연구[6]와 '죽음의식'과 관련된 정신적 작용이나 주체의 내면을 상세하게 분석한 연구[7]들이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미학적 인식론적 이론틀을 가지고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인상주의 비평에 의존했던 연구 수준을 진일보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학적 연구에서는 다른 시인들과의 비교 목적 속에서 선택된 특징이 거론되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박인환의 고유성을 설명해주기에는 아쉬움이 남아 있다고 본다.

박현수의 연구는 새롭게 발굴된 박인환의 시를 포함하여 해방 공간의 시가 인민민주주의 민족문학론과의 친연성이 있음을 상세하게 논구하고 전쟁 후의 시적 성취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8] 이 연구에서는 박인환의 전후 시에서 초월적 권능을 상실한 초월적 존재와 파편적 세계관, 진보적 이념에 대한 비판과 폭풍의 이미지를 추출하여 박인환이 전쟁 체험을 통해 형성된 비극적 전망을 뛰어나게 형상화하였음을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의 관점은 본고의 문제의식과 상통하는 바가 있어 본고의 논지를 전개하는 데 그 실증적인 논거와 치밀한 해석의 도움을 입은 바가 크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검은 신'에 대한 해석을 전망 부재 의식이나 진보적 이념에 대한 비판에 한정하는 것에 거리를 두고 역사에 대한 인식을 '우울'이라는 정서와 '알레고리'라는 수사적 태도로서 재해석해보고자 한다.

박인환의 환멸과 체념은 그의 다른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계열의 시에 비해 비극적인 어조로 비춰진다. 그러나 이 두 계열에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우울'의 감정에 대해 한계전은 그것이 미묘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의 '우울'을 감상주의적인 것으로 보느냐 예언적, 구원적인 것에 호소하는 것으로 보는가가 박인환 연구에서 결정적인 대목이라는 것이다.[9] 그는 박인환이 전후 모더니즘 시들에 관류하는 공통분모를 누구보다도 폭넓게 소유하고 있으며 한편, "누구

6) 송기한, 「역사의 연속성과 그 문학사적 의미: 박인환의 경우」, 문학사와 비평연구회(편), 앞의 책; 송기한, 『한국전후시와 시간의식』(태학사, 1996).

7) 윤정룡, 「1950년대 한국 모더니즘 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1992); 조영복, 「1950년대 모더니즘 시에 있어서 '내적체험'의 기호화과정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1992); 조영복, 「죽음의 친화성과 단절의 언어」, 『한국 현대시와 언어의 풍경』(태학사, 1999); 박슬기, 「한국 전후시의 그로테스크 시학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2004).

8) 박현수, 「전후 비극적 전망의 시적 성취」, 『한국 모더니즘 시학』(신구문화사, 2007).

9) 한계전, 앞의 논문, 405쪽.

에게도 없는 우울증과 그로부터 탈출하게 해주는 초월적 존재를 불러"내고자 했다고 보았다.[10] 박인환의 우울과 초월적 존재는 상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의 시에 편재해 있는 묵시록적 풍경[11]과 더불어 그의 시를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환멸과 우울의 정서가 다른 모더니스트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예언적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음을 주목해 보고자 한다. 그러한 점에서 본고에서는 박인환 시의 '우울'이 감상주의적인 것이 아닌 역사적 인식에서 비롯된 구원적 태도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II. 전쟁체험 이전의 현실인식

박인환의 시가 전쟁 전후 일관되게 모더니즘의 자질을 지니고 있음은 시 작품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자기 파괴적인 언어 혼란과 이미지의 파편화 등을 통해 현대의 혼란스럽고 파편화된 세계를 보여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 박인환이 현실에 대해 보인 반응은 이미 여타의 시인들과 상당한 변별성을 띠고 있었다. 해방공간인 1949년 김경린, 김수영, 임호권, 양병식과 5인 합동시집인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을 내던 무렵 그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현실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시를 리얼리즘적인 경향의 시로,[12] 혹은 리얼리즘적 모더니즘으로[13] 보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최근 제기된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한 연구에서는 박인환이 진보적 좌파 문학단체인 조선문학가동맹의 사상과 친연성을 지니고 있고 남로당의 노선과 일종의 연계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다.[14] 해방공간에서 박인환의 행적과 관련된 연구들은 박인환의 사상적 근

10) 위의 논문, 406쪽.

11) 필자는 박인환의 시에 등장하는 종말의식에 주목한 바 있다. 곽명숙, 「박인환의 시의 묵시록적 풍경」, 『한국현대작가논총』, 2집(한국현대작가학회, 2008). 본고는 이 논문과는 달리 시편들에 대한 해석의 관점을 달리하고 보완하여 발표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12) 송기한, 앞의 논문, 157쪽; 윤정룡, 앞의 논문, 88쪽.

13) 조영복, 앞의 논문, 10쪽.

14) 박현수, 앞의 책, 227~235쪽. 방민호, 「박인환 산문에 나타난 미국」, 『한국현대문학연구』, 19집(2006), 421~422쪽. 방민호의 논문은 이러한 전기적 사실 뿐만 아니라 박인환의 영화평과 전후 말년에 다녀온 아메리카 기행 산문 등을 통해 박인환의 현실문명 비판적 인식을 면밀히 추적해

거를 새롭게 조명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참고로 하여 박인환의 시에 등장하는 현실인식의 전환 내지 굴절이 전쟁 발발 이전에 이미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의 현실비판 의식이 어떠한 정치적 당파성 내지 친연성을 갖는가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겠으나, 그의 현실비판 의식이 전쟁이라는 절대적 파국의 상황을 맞기 이전에 어느 정도 한계를 인식하고 내면 속으로 유폐되어 가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것은 전쟁이라는 외부적 충격에 앞서 그 출발지점을 명확히 확인해본다는 의의를 갖는다.

박인환의 초기 시세계가 스티븐 스펜더와 같은 문명비평적인 시운동에 사상적 맥을 두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의 시 「열차」에는 스펜더의 시가 인용되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의 슬픈 관습과 / 봉건의 턴넬"을 뚫고 "아름다운 새날"을 향한 역사의 진보가 비유적으로 그려져 있다.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에 실린 후기를 통해서도 박인환은 자본주의와 문명에 대한 비판을 드러낸다.

> 나는 不毛의 文明 資本과 思想의 不均整한 싸움 속에서 市民精神에 離反된 言語作用만의 어리석음을 깨달었었다. 資本의 軍隊가 진주한 市街地는 지금은 憎惡와 안개낀 현실이 있을 뿐…15)

그는 "자본의 군대가 진주한 시가지"라는 비유를 사용하며 문명의 불모성과 자본의 침략성을 고발할 뿐만 아니라, 그에 맞선 싸움 속에서 시민정신에 유리된 언어작용의 어리석음을 말한다. 그에게서 세계와 문명은 자본과 사상, 즉 물질과 정신의 균형이 파괴된 세계로 인식된다. 화자가 말하는 시민정신이란 문명과 자본에 대해 저항하는 비판정신으로서 정치 사회의식의 차원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의식의 각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박인환이 자본의 물질적 파괴력에 맞선 시민정신의 창조력을 하나의 문학적 신념으로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민정신의 창조력이 해방공간에 분출된 '나라만들기'의 신념으로까지 갔는가를 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힘들다. 다만 일관된 비판의 자세를 볼 수 있을 따름이다.

내고 있다.

15) 박인환, 「후기」, 김경린(외),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도시문화사, 1949), 451쪽.

밤이 가까울수록
星條旗가 펴덕이는 宿舍와
駐屯地의 네온·싸인은 붉고
짠그의 불빛은 푸르며
마치 유니온·짝크가 날리든
植民地 香港의 夜景을 닮어 간다
朝鮮의海港 仁川의埠頭가
中日戰爭때 日本이支配했든
上海의밤을 소리없이 닮어간다

— 「인천항」16)

위 시의 인천항에 대한 묘사에는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담겨있다. 성조기와 "유니온 짝크"의 유사성, '인천'과 홍콩, 상해로 이어지는 연상은 식민지와 피식민지의 권력관계에 대한 언급으로 확장되고 이를 통해 항구의 밤풍경은 식민지의 풍경으로 의미가 확대된다. 구체적인 감정 상태가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해방 이후 자주적인 정부 수립에 성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둔군의 국기를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에는 일종의 회한이 느껴진다. 이처럼 박인환이 해방공간에서 쓴 현실비판적인 시들은 아직 식민지의 체험이 채 가시지 않은 포스트식민지의 상황17)에서 중심부(제국주의)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박인환은 포스트식민지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위의 시에서 볼 수 있듯이 우회적인 방식으로 언급한다. 즉, 다른 제국주의 지배 하의 약소국가를 떠올리는 방식으로 현실에 대해 발언하는 방식이다. 그가 인도네시아 인민에게서 약소민족 국가로서의 동질감을 느끼고 연대의식을 드러내는 다음 시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16) 김경린(외), 위의 책, 64쪽.

17) post-colonialism이라는 용어는 접두사 'post'가 지니고 있는 시간적 의미로서의 '-이후'의 뜻과 식민지의 청산이라는 '탈(脫,)-'의 의미가 모두 내포되어 있다. 1945년 이후 남북한의 단독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해방공간에는 식민지의 청산이라는 벗어남의 과제와 서구의 보편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한 수용과 묵인, 반발이 교차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 식민주의라는 용어는 리얼리티를 포용하는 동시에 글쓰기와 관련된 심리적 단초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빌 애쉬크로프트(외 저)/이석호(역),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이론』(민음사, 1996), 44~45쪽.

동양의 오-케스트라
가메란의 伴奏樂이 들려온다
오 弱小民族
우리와같은 植民地의 인도네시아
(중략)
마땅히 요구할수잇는 人民의解放
세워야할 늬들의나라
인도네시아共和國은 성립하였다 그런데
연립정부란 또 다시 迫害다
支配權을 回復할랴는 謀略을 부셔라
이제는 植民地의 고아가 되면 못쓴다
全人民은 一致團結하야 스콜처럼 부서져라
帝國主義의 野蠻的制裁는
너이뿐만아니라 우리의侮辱
힘있는데로 英雄되어 싸워라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주는 시」[18]

위 시의 서두에서 나오는 인도네시아의 전통 타악기 가멜란(gamelan)의 리듬과 진동을 타듯이 시 전체에서 화자는 격정적이고 직설적인 어조로 웅변하고 있다. 약소민족이며 식민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향해 당연한 권리로서 "인민의 해방"을 주장하라고 촉구하고, 연립정부에 대해서는 박해, 모략이자 "식민지의 고아"가 되는 길이라고 비판한다. 박인환이 이 시기 '말리서사'를 운영하면서 김기림, 오장환 등과 친분이 있었고, 아나키스트 화가 박일영과 가까웠다는 김수영의 진술[19]과 앞선 연구에서 밝혀진 전기적 사실들을 참고한다면 이러한 시들의 격정적 어조는 박인환의 정치적 태도와 결부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의 문명비판적 시민정신이 포스트식민주의적 상황에 기반한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인민주의의 지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명확한 논설의 형태로 발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읽어내는 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더구

18) 위의 책, 69쪽.
19) 김수영, 「말리서사」, 『김수영전집 2』(민음사, 1983), 72쪽.

나 그 시민정신은 구체적인 현실과 관련되어 다양한 시적 형상화로 나타나지 못하고, 곧 내면의식으로의 급격히 기울어짐을 보여준다.

黃褐色階段을 내려와
모인 사람은
都市의地平에서 싸우고왔다
눈앞에 어리는 푸른시그날
그러나 떠날수 없고
모다들 鮮明한 記憶속에 잠든다
—「지하실」, 『민성』(1948.3)

위 시를 보면, "도시의 지평"에서 싸우던 사람들은 이제 "황갈색"의 "계단"을 내려와 지하실에 모여있다. 희망과 전진을 의미하는 푸른 신호는 눈에 어른거리지만 어떠한 출발도 결별도 없이 과거만을 추억하고 잠들어 있는 상태로 그려진다. "기억 속에 잠든다"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여 현재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는 것이며, 역설적으로 미래에 대한 망각이라고 볼 수 있다. 시민정신의 잔상은 남아 있으나 현저히 "내면공간으로 함몰"[20]되어 있다고 보는 것도 틀리지 않다. 지하실 밖에서의 싸움의 목적이나 현재 무기력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쇠퇴를 의미하는 황갈색과 기억으로의 침잠을 통해 화자의 비판적 시민정신이 꺾이고 어떠한 심리적인 좌절을 맛봤음을 짐작하게 한다. 실천적인 행동이 차단된 상황에서 박인환은 외적인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거나 비판하여 맞서기 보다는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고 갈 곳 모르는 정신적 공황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써 자신의 시민정신을 드러낸다.

이러한 박인환의 현실인식과 표현의도는 다음의 시 「정신의 행방을 찾아」의 관념적인 언어들 속에서 읽을 수 있다.

온 世上에 피의 비와 鐘소리가 끄칠 때
시끄러운 時代는 어데로 가나

20) 송기한, 앞의 논문, 159쪽.

强烈한 싸움 속에서
自由와 民族이 이즈러지고
모든 建築과 原始의 平和는
새로운 憎惡에 쓰러져간다.
아 오늘날 모든 시민은
靜寞한 生命의 存續을 지킬 뿐이다.
—「정신의 행방을 찾아」, 『민성』(1949.4)

1949년에 발표된 위 시는 곧 닥쳐올 전운을 예감한 듯, “강렬한 싸움”과 “새로운 증오” 속에 모든 것이 파괴된 파국이 왔음을 노래하고 있다. 그 속에서 시민은 “생존의 존속”에 매달리게 될 뿐 박인환이 견지하고자 했던 ‘시민정신’은 찾기 어렵게 된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주는 시」에서 울려 퍼졌던 “영웅”적인 목소리는 “적막한 생존의 존속”을 냉소적으로 읊조리는 목소리로 바뀌어 있다. 「정신의 행방을 찾아」라는 위 시는 시민정신의 추구에서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게 된 박인환 자신의 정신의 행방을 알려주고 있는 셈이다.

그의 시민정신은 해방공간이라는 포스트식민지적인 상황에서 청년적 울분과 자본주의 문명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점차 심각해지는 사회적 정치적 혼란과 대립, 그 증오의 격랑 속에서 자신이 꿈꾸었던 시민정신과 자유로운 개인의 완성이라는 이상이 더이상 실현되기 어렵다는 좌절을 겪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대적 혼란 속에서 무기력한 개인이 견뎌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는 “지하실”이라는 유폐된 공간으로 내려간다. 그러나 박인환은 그곳에 유폐된 채 머물지 않고, 새로운 세계상을 직시하고 분열된 정신을 구원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 나선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III. 전후 분열된 정신과 묵시록적 우울

1. 분열된 정신과 세계에 대한 환멸

「세월이 가면」이나 「목마와 숙녀」와 같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감상적인 작품도

있으나 박인환의 대부분의 시편들은 쉽게 해독되지 않는 난해함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난해함은 전쟁 체험 이후에 쓴 시편들에서 가중되는데 전쟁과 같은 대변화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미래의 방향을 예측할 수 없고 그 윤곽조차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쟁의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 외의 다른 방향감각을 잃고 만다. 전투원이라면 맹목적으로 승리를 위한 방향만을 가지겠지만, 전투원이 아닌 사람들은 전쟁이 가져오는 환멸과 강요되는 죽음에 대한 태도 변화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21] 즉 인간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압도하는 전쟁의 힘에 눌리며 죽음에 대해 비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박인환의 경우도 죽음에 대한 경사를 보이는 것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조영복은 '죽음편호증'이라는 개념을 들어 이를 현실적인 욕망과 의식의 무화, 일상성의 무의미성에 대한 통찰로 파악하고 있다.[22] 박인환의 경우 죽음에 대한 경사는 실질적인 자포자기의 죽음충동이라기 보다는 전쟁이라는 외적 상황에 의해 자신의 욕망과 환상이 깨어지는 데에서 오는 고통과 불안의 표출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박인환이 유일하게 남긴 시집 『선시집』(1955)의 후기를 통해 그가 당대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했는가에 대한 단서를 엿볼 수 있다.

> 나는 十餘年 동안 詩를 써왔다. 이 世代는 世界史가 그러한 것과 같이 참으로 기묘한 不安定한 時代였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成長해 온 그 어떠한 時代보다 혼란하였으며 精神的으로 苦痛을 준 것이었다. (중략)
> 하옇든 나는 우리가 걸어온 길과 갈 길, 그리고 우리들 自身의 分裂한 精神을 우리가 사는 現實社會에서 어떻게 나타내 보이며 純粹한 本能과 體驗을 通해 본 不安과 希望의 두 世界에서 어떠한 것을 써야 하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作品을 發表하였다.[23](밑줄 인용자)

그는 자신의 시대가 불안정하며 어느 시대보다도 혼란스러운 "검은 준열(峻烈)의 시대"라고 밝히고 있다. '검은 준열의 시대'라는 말을 시집의 제목으로 삼으려는 생각도 했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시대적 혼란으로부터 정신적

21) S. Freud(저)/김석희(역), 『문명 속의 불만』(열린책들, 1997), 40쪽.
22) 조영복, 앞의 논문, 32, 36쪽.
23) 박인환, 『선시집』 (산호장, 1955), 238~239쪽. 이하 박인환의 시들은 이곳에서 인용한다.

고통을 받았음을 고백한다. 초기에 그가 추구했던 시민정신은 지향을 잃고 "분열된 정신"이 되어 불안한 오늘을 살고 있다. 박인환이 고민하는 것은 그러한 분열된 정신을 나타내는 한편, 오늘의 불안과 내일의 희망에 대해 어떻게 노래할 것인가였다. 그는 전쟁 이전의 시에서도 이미 좌절을 맛보고 시민정신이 갈 곳을 잃었음을 고백했지만, 오히려 극도의 불안한 시대 속에서 그가 시에 담아야 할 것이 '불안'이냐 '희망'이냐에 대해 고뇌하고 있는 것이다. "폐쇄된 대학의 정원은 / 지금은 묘지"(「최후의 회화」)가 되어버린 폐허 위에서 살아남은 생은 죽음보다 더한 허무에 직면할 뿐이다. "살아 있는 것이 있다면 / 그것은 나와 우리들의 죽음보다도 / 더한 냉혹하고 절실한 / 회상과 체험"(「살아 있는 것이 있다면」)만이 남아 시인을 환멸과 우울로 인도하는 것이다.

>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허무러지는
> 靜寂과 硝煙의 都市그 暗黑 속으로…
> 瞑想과 또다시 오지 않을 永遠한 未來로…
> 살아 있는 것이 있다면
> 流形의 愛人처럼 손잡기 위하여
> 이미 消滅된 靑春의 反逆을 回想하면서
> 懷疑와 不安만이 多情스러운
> 侮蔑의 오늘을 살아 나간다.
>
> —「살아 있는 것이 있다면」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에서 살아감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 위의 시에서 화자는 불안함을 느낀다. 정적과 초연이 메운 도시의 암흑 속에서 화자의 허무와 불안을 배가시키는 것은 다시 오지 않을 "영원한 미래"이다. 그리고 유일하게 자기를 위안해 줄 수 있는 것은 이미 소멸된 "청춘의 반역"이다. 미래와 과거 어느 곳에도 긍정할 수 없는 화자의 상태는 회상이라는 자기 위안에 빠진 현재의 자신에 대해서도 회의를 느낀다. 화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감에서 "회상도 고뇌도 이제는 망령에게 팔은 철없는 시인"이라고 자탄하며 현재의 상태를 "시체"와도 같이 느낀다. 박인환이 말한 분열의 정신은 이렇게 시대와 불화하는 정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환멸을 느끼는 자신과 그럼에도 생에 애착을 느끼며 오늘을 살아야 하는

자신을 두고 느끼는 자의식이기도 하다.

> 戰爭 때문에 나의 財産과 親友가 떠났다.
> 人間의 理智를 위한 書籍 그것은 잿더미가 되고
> 지난날의 영광도 날아가 버렸다.(중략)
> 그러나 不斷한 自由의 이름으로서
> 우리의 뜰 앞에서 버러진 싸움을 洞察할 때
> 나는 내 출발이 늦은 것을 告한다(중략)
> 이 넓고 個體 많은 土地에서 나만이 遲刻이다
> 언제 죽을지도 모른 나는
> 生에 한 없는 愛着을 갖는다
>
>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밑줄 인용자)

화자는 전쟁 때문에 모든 것이 떠나거나 잿더미가 되었음을 말한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상태이다. 그러나 폐허가 된 속에서 화자가 새로운 자신에 대한 반성을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의 환멸감은 모든 과거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것이지만, "부단한 자유의 이름으로서 / 우리의 뜰 앞에서 버러진 싸움"을 통찰하면서 '생'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깨닫고 있다. 한편으로 해방공간의 「지하실」에서 희미하게 드리워져 있던 "우리들"의 연대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박인환의 시에 등장하는 '숙녀'나 '소녀'는 이러한 '우리들' 가운데 일부라는 점은 추후 재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시에서 화자가 자유로운 정신적 동질감을 느끼고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던 동료로 회상하던 그들은 예술가(앙드레 말로, 아라공 등[「일곱개의 층계」])의 부류로 이제는 사라져 버린 이들이다. 그들에 대한 추억은 망각이라는 자의식과 더불어 박인환의 시에 자주 환기된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화자는 아직 출발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폐허 속에서 "생에 대한 한 없는 애착"을 갖게 되는 자기 반성이 시간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음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자신이 "지각"했다고 느낀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앞질러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은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박인환의 시에 나타나는 환멸과 허무의 근원은 그의 의식 속에 자신의 현재 시간 앞에 앞질러 놓여 있는 무엇인가와 현재의 괴리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추론

해 볼 수 있다. 그것은 그가 시에 담아야 하는 것이 현재 체험하고 있는 '불안'이냐 아니면 언젠가는 오거나 결국 오도록 해야 하는 미래의 '희망'이냐에 대한 시적 주제에 대한 자기 고민의 다른 형태였을 것이다.

2. 묵시록적 우울과 '불행한 신'의 알레고리

박인환의 여러 시편들에 두루 등장하는 '센티멘탈리티'한 감수성은 일종의 슬프고 불행한 감정, 즉 우울(melancholy)의 정서라고 구체적으로 부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불안과 환멸의 정서와 맞닿아 있기도 한 그 우울은 죽음의 불가피성과 인간의 유한성, 비극적인 역사에 대한 애도 등의 인식에서 비롯된다. 사라져 버린 사람들과 소멸해 버린 "청춘의 반역"을 회상하는 슬픔에 빠진 화자는 현재를 불행하게 느끼며 은총의 상태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슬픔과 불행의 심리적 상태가 세상의 종말, 신학적 구원에 대한 부정적 상상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묵시록적 우울'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우울'은 알브레히트 뒤러의 판화 「멜랑콜리아 I」에서 볼 수 있듯이 고대로부터 창조성과 독창성의 징표였다.[24] 박인환의 묵시록적 우울은 전쟁이라는 직접적 체험을 신학적으로 변용시켜 새로운 이미지로 창출시키도록 하였다. 그것이 '검은 신' 또는 '불행한 신'의 이미지이다. 이것은 그가 현재의 절망 내지 환멸에 맞서 어떻게 미래를 말할 것인가라는 도저한 자기 물음 끝에 찾은 극적인 시적 방법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인간의 이해나 의지를 떠나 존재하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앎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 신학적인 인식이라고 할 때, 박인환이 보여준 부정적인 신학에서는 그러한 초월적 존재를 상정하지만 그 존재는 인간에게 구원과 선의 의지를 주지 않고 오직 피할 수 없는 파국과 종말의 어두운 운명만 부여한다고 보고 있다.

> 江 기슭에서 期約할 것 없이 쓰러지는

24) '우울' 혹은 '우수'로 번역되는 멜랑콜리(melancholy)는 인간의 권위가 회복되어 인간에 대한 낙관주의가 풍미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르네상스 시대에도 만연했다. 1514년 뒤러의 판화 작품에는 검은 태양과 우울한 천사가 있다. 이 천사도 발터 벤야민의 '역사의 천사'처럼 파국의 역사 앞에 어떠한 의지도 욕망도 보여주지 못한 채 그림에는 어두운 우수만이 압도하고 있다. 임철규, 『눈의 역사 눈의 미학』(한길사, 2004), 263쪽 참조.

하루만의 인생
華麗한 욕망
旅券은 산산이 찢어지고
落葉은 길 위에 떨어지는
캘린더의 鄕愁를 안고
자전거의 少女여 나와 오늘을 살자.

군인이 피워 물던
물뿌리와 검은 연기의 印象과
위기에 가득찬 세계의 邊境
이 回想의 긴 溪谷 속에서도
列을 지어 죽음의 비탈을 지나는
서롭고 또한 幻想에 속은
어리석은 영원한 殉敎者.
우리들.

—「회상의 긴 계곡」

박인환은 현실에 “검은 연기”와 “검은 환영”이 어리는 것처럼 일상과 인간의 운명에 부정적인 신학의 이미지를 덧씌워 우의적으로 그려낸다. 그것은 그 자신의 새로운 해석에 의해 창조된 알레고리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생명은 지속되지만 욕망은 부서지거나 시들고 최후의 송가가 황폐한 토지에 울려퍼진다. 일상적 인간들(“자전거의 소녀”나 물뿌리를 피우던 “군인”)은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계곡”에서 모두 한 무리의 “열을 지어” 정해진 운명을 가야 한다. 화자에게 이 세계는 “위기에 가득찬 세계의 변경”이며 “죽음의 비탈”이다. 이 위태로운 곳에 있는 사물과 사람들의 인상은 모두 서럽고 우울하다. “우리들”은 “환상에 속은 / 어리석은 / 영원한 순교자”라고 화자는 탄식한다. 이러한 탄식 속에는 인간에게 불가피하게 몰아닥치는 파국에 대한 우울한 역사인식이 깔려 있다.

한국전쟁을 치른 박인환처럼 세계대전에 휩싸인 유럽에서 유태인의 예속된 운명을 치러야 했던 발터 벤야민은 이러한 역사의 이미지를 17세기 바로크 예술에서 찾아낸 바 있다. 그는 바로크 예술의 양식에서 잔해 더미로 붕괴해 가는 역사의 이미지를 ‘알레고리’로 해석한다. 알레고리는 단순히 말하면 ‘하나의 사물을 말

하면서 다른 사물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의도에서 낮은 비유의 수사법으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벤야민은 알레고리의 이접적이며 이중적인 성격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유기적으로 단일화되고 통일되어 있는 상징적 예술에서는 무시되는 소외와 고통과 역사의 실패가 알레고리에서는 불완전하고 조화를 모르는 파편들로 나타나는 것이다.[25] 그 파편화된 언어와 시각적 이미지들 속에서 짜맞춘 글자(monogram) 가운데 개념이 아닌 이념을 찾아내는 것이 비평의 역할이라는 본 벤야민은 일종의 '신학적' 해석학을 제시한다. 알레고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의 형상을 빌려 표현한다. 바로크 양식의 알레고리 안에서 세계는 수난의 역사로 드러나고 소외와 고통의 역사(facies hippocratica)가 자연에 새겨져 있는 것이다.[26] 알레고리는 의미들을 상징처럼 조화와 화해 속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파편화된 상태 그대로 드러낸다.

이 점은 박인환 시에 등장하는, 의미연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파편적인 이미지의 나열이나 '신'과 관련된 묵시록적 어휘들을 모더니즘의 기법으로만 치부할 수 없도록 한다. 바로 그 속에 인간이 역사 속에서 겪는 불행과 고난을 보여주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구원을 암시할 수 있다는 점을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박인환의 "검은 신"이나 "불행한 신"은 전후의 혼란된 세계상이자 동시에 그 역사의 알레고리라고 할 수 있다. 그 신은 마치 바로크예술에서 폭군이면서 동시에 순교자인 군주처럼 등장한다.[27]

> 戰爭이 뺏아간 나의 親友는 어데서 만날 수 있습니까.

---

25) Benjamin, W., *The Origin of German Tragic Drama*, John Osborne(tran.)(NLB, 1977), p. 189. 이를 두고 벤야민은 개인을 넘는 사물의우위, 전체를 넘는 파편의 우위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벤야민이 해석해낸 바로크의 알레고리 양식은 조형적 상징과 유기적 총체성을 추구한 고전주의의 절대적 반대자로 등장하며, 기존의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로 대비되던 예술양식에 역사적 인식과 결부된 새로운 예술 양식으로 추가된다.

26) *Ibid*., p. 167.

27) 벤야민의 역사인식과 비교하여 박인환의 '검은 신'을 해석하고, '역사의 천사'나 '폭풍' 이미지를 분석한 박현수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박현수, 앞의 책, 246~253쪽. 본고에서도 벤야민의 「역사철학테제」를 참고하고 있지만, 본고에서 바로크적 알레고리와 묵시록적 우울의 개념을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은 부정적 신학의 상상력이 역설적으로 세속적 구원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재해석하고 강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앞선 해석과 차이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슬픔 대신에 나에게 죽음을 주시오.
人間을 대신하여 世上을 風雪로 뒤덮어 주시오.
建物과 蒼白한 墓地 있던 자리에
꽃이 피지 않도록.

하루의 一年의 戰爭의 凄慘한 追憶은
검은 神이여
그것은 당신의 主題일 것입니다.
—「검은 神이여」(원문에는 행간 간격이 넓음)

오늘 나는 모든 욕망과
사물에 작별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친한 죽음과 가까워집니다
과거는 무수한 내일에 잠이 들었습니다
불행한 神
어디서나 나와 함께 사는
불행한 神
(중략)
또 다시 우리는 結束되었습니다.
皇帝의 臣下처럼 우리는 죽음을 約束합니다.
지금 저 廣場의 電柱처럼 우리는 存在됩니다.
쉴 새 없이 내 귀에 울려오는 것은
불행한 神 당신이 부르시는
폭풍입니다.
—「불행한 신」

「검은 신이여」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신은 '죽음'을 줄 수도 있고 세상을 "풍설"로 덮을 수도 있으며, 하루라는 시간부터 일년 그리고 전쟁이라는 장시간에 이르기까지 인간에게 "처참한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두려운 권능을 지닌 초월자이다. 그러나 동시에 「불행한 신」에서 그 신은 나와 함께 결속되어 있다. 그것은 내가 욕망을 잃어버리고 죽음에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과거는 무수한 내일에 잠이

들"어 있다는 말은 곧 미래의 희망과 욕망의 의지가 소멸하였기에 내일과 과거의 차이가 무화되어 버렸다는 의미가 된다. 오직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며 그것에 매달린다면 미래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만일 신의 창조에 의해 시간이 시작되었다면 미래의 시간이 무의미해졌을 때 시간도 무화되며 나에게 있어 신의 존재도 소멸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불행한 신'은 나와 결속되어 있고 그 신의 표정은 결국 몰락의 역사 속에 파멸하고 마는 인간의 운명을 닮아 있는 것이다. 신마저도 "저 광장의 전주처럼" "존재"될 뿐이다. 그 신도 역시 죽음의 약속을 피할 수 없는 '불행한' 존재인 것이다.

화자의 귀에는 이 불행한 신이 부르는 '폭풍'만 쉴새 없이 울린다. 그 불행한 신이 불러오는 폭풍은 파괴를 가져온 것이지만, 동시에 지금까지의 모든 잔해를 쓸어버릴 수 있는 파괴이기도 할 것이다. 즉 역설적으로 파괴 후의 폐허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쓸어버릴 힘을 갈구한다는 것은 새로운 파국, 새로운 미래에 대한 요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때문에 박인환은 비록 부정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시편들 가운데 한 편에 '새로운 신에게'라는 부제를 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乘客이 사라진 列車 안에서
오 그대 未來의 娼婦여
너의 希望은 誤解와
感興만이다.

戰爭이 머물은 庭園에
설래이며 닥아 드는
不運한 遍歷의 사람들
그 속에 나의 靑春이 자고
絶望이 살던
오 그대 未來의 娼婦여
너의 慾望은
나의 嫉妬와 發狂만이다.
(중략)

너의 目標는 나의 무덤인가
너의 終末도 永遠한 過去인가
—「未來의 娼婦 - 새로운 神에게」

위의 '새로운 신에게'라는 부제가 붙은 시에서 진보를 상징하는 '열차'안의 승객은 사라지고 미래를 부여받은 것은 '창부'라는 존재이다. "미래의 창부"도 "불행한 신"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으로 그려진 존재이다. 이 "미래의 창부"는 "검은 신"과 더불어 벤야민의 「역사철학테제」에 등장하는 "역사의 천사"를 연상시킨다. 「역사철학테제」에서 연상되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 역사의 천사도 바로 이렇게 보일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들 앞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는, 잔해 위에 잔해를 쉬임없이 쌓이게 하고 또 이 잔해를 우리들 발 앞에 내팽개치는 단 하나의 파국을 바라보고 있다.[28]

위에서 언급하는 "역사의 천사"와 관련하여 한 연구에서는 박인환의 시에 등장하는 '신'이나 '미래의 창부' 등을 세계의 파국 앞에 무기력한 수동적 존재로 해석하고 있다.[29] 즉 구원의 필연적 실패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벤야민의 '구제비평(Rettende Kritik)'의 의도는 아담의 언어 이래로 타락한 언어 속에 궁극적인 진리가 상기되듯이, 혹은 비의적인 문자의 글자맞추기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듯이, 예술작품이 섬광처럼 구원을 보여주는 순간을 드러내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박인환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죽음의 이미지는 일정한 의미맥락을 잡기 힘들어 죽음충동만을 드러내는 것으로 간주되기 쉽다. "미래의 창부"도 '역사의 천사'처럼 모든 것을 절망으로 몰아가는 시간의 파괴적인 힘 앞에 무력한 것이 사실이다. 그

---

28) W. Benjamin(저)/차봉희(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민음사, 1980), 348쪽.

29) 박현수, 앞의 책, 246~249쪽. 이 연구에서는 「밤의 미매장」에 나오는 '뇌우 속의 천사'를 두고 "역사의 천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고 있으나, 필자가 보기에 이 시의 "호흡이 끊어진 천사"라는 구절로 보아 여기에서 '천사'는 화자가 사랑하지만 죽음을 맞은 여인에 대한 호명 정도로 보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

리고 화자는 절망에 사로잡혀 미래에 대해 '오해'와 '질시'와 '발광'과 같은 부정적인 어휘들을 언급한다. 그러나 '미래'와 '과거'의 역설적인 결합을 통해 "영원성"에 대한 순간적인 섬광을 일으킨다. '미래의 창부'는 타락한 유혹의 표상이지만, 동시에 "향기 짙은 젖가슴을 / 총알로 구멍 내고 / 암흑의 지도 고절된 치마끝을 / 피와 눈물과 / 최후의 생명으로 이끌며" 가는 존재이다. 그렇게 이끌고 가서 도달하는 목표가 "나의 무덤"이고 "영원한 과거"라는 것이다. 마치 '불행한 신'이 권능자이면서 우리와 같은 순교자인 것처럼, "미래의 창부"는 훼손된 육체와 타락한 정신이지만 최후의 생명으로 이끌고 나가는 희생양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다. 박인환의 시에서 '과거'는 지금은 소멸되었지만 정신적 고양으로 가득찼던 시절이다. "영원한 과거"는 그런 점에서 닫히고 밀폐된 전망, 역사의 절망만으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다. 파국과 폭풍을 기다리며 잔해 위에 잔해를 쌓고 있는 '불행한 신'과 '미래의 창부'는 역설적으로 이 지상에 구원이 필요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V. 결론

이상으로 박인환의 시에 나타나는 전쟁체험으로 인한 환멸과 역사의식을 묵시록적 상상력에서 배태된 우울과 알레고리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전쟁 이전의 그의 작품에는 이미 외적인 한계로 인한 좌절감과 애도하는 태도로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후 전쟁 체험을 계기로 환멸과 불행의 정서가 비극적인 파멸의식, 즉 묵시록적인 우울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단지 죽음에 대한 도착이나 충동이 아닌 현재의 절망을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모색의 과정 속에서 찾은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하였다. 그의 시에 나타난 전쟁 체험의 시적 변용은 부정적 신학에 기대어 구원에 대한 역설적 상상력을 보여줌으로써 1950년대 모더니즘의 한 가능성을 이루었다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곽명숙, 「박인환의 시의 묵시록적 풍경」. 『한국현대작가논총』 2집, 한국현대작가학회, 2008, 89~112쪽.
김경린(외),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 서울: 도시문화사, 1949.
박인환 저/문승욱(편), 『박인환전집: 사랑은 가고 과거는 남는 것』. 서울: 예옥, 2006.
문학사와 비평연구회(편), 『1950년대 문학』. 서울: 예하, 1991.
박인환, 『선시집』. 서울: 산호장, 1955.
박현수, 『한국 모더니즘 시학』. 서울: 신구문화사, 2007.
방민호, 「박인환 산문에 나타난 미국」. 『한국현대문학연구』 19집, 2006. 6, 413~448쪽.
서준섭, 『한국 모더니즘 문학 연구』. 서울: 일지사, 1989.
송기한, 『한국전후시와 시간의식』. 서울: 태학사, 1996.
오세영, 『20세기한국시연구』. 서울: 새문사, 1989.
이동하(편), 『박인환』. 서울: 문학세계사, 1993.
조영복, 「1950년대 모더니즘 시에 있어서 '내적체험'의 기호화과정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2.
조영복, 『한국 현대시와 언어의 풍경』. 서울: 태학사, 1999.
한계전, 「전후시의 모더니즘적 특성과 그 가능성 2」. 『시와 시학』 1991년 여름호, 403~414쪽.
빌 애쉬크로프트 외(저)/이석호(역),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이론』. 서울: 민음사, 1996.
Benjamin, Walter(저)/반성완(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서울: 민음사, 1983.
Freud, Sigmund(저)/김석희(역), 『문명 속의 불만』. 서울: 열린책들, 1997.
Witte, Bernd(저)/안소현・이영희(역), 『발터 벤야민』. 서울: 역사비평사, 1994.

Benjamin, Walter, *The Origin of German Tragic Drama.* John Osborne(tran.), NLB, 1977.

국 문 요 약

이 연구는 박인환의 시에 나타나는 모더니즘적인 의미의 혼란과 언어의 파편화에 대해 재해석함으로써 1950년대 모더니즘의 한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는 1950년대 모더니즘의 출발지점에서 현대문명의 불모성을 비판하는 시민정신을 내세웠지만, 전쟁 이전에 이미 외적인 한계로 인한 좌절

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과거를 애도하며 현재를 불행으로 느끼는 그의 의식은 전쟁을 계기로 세계에 대한 환멸과 파국의 운명에 체념하는 묵시록적인 우울을 드러내게 된다. 이 묵시록적인 우울과 "불행한 신"이라는 알레고리를 통해 박인환은 현재의 절망을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고 본다. "불행한 신"이라는 기호는 초월적인 권능을 지녔으면서도 인간의 운명을 함께 하는 순교자적 존재이자 인간의 역사에 대한 알레고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묵시록적 우울과 알레고리를 통해 박인환은 비극적 상황에 대한 구원의 역설적 상상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투고일 : 2009. 7. 15. ◉ 수정일 : 2009. 8. 28. ◉ 게재확정일 : 2009. 9. 10.
◉ 주제어(keyword) : 묵시록적 우울(melancholy of apocalypse), 1950년대 모더니즘(the modernism of 1950s), 박인환(Pak In-hwan), 알레고리(allegory), 구원(salvation), 역사의 천사(the angel of history).